

SPECIAL
SUNDAY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헌금 전 이야기

개 교회는 원하는 주일을 택해 연합감리교 학생주일로 지킬 수 있지만, 많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매년 11월 넷째 주일을 연합감리교 학생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의 이 날은 교회력의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본 헌금 전 이야기는 2021년 11월 28일의 성서 일과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주일이나 개 교회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된 [예배 자료](#), [어린이 설교 자료](#), [설교 자료](#)는 각 교회의 실정에 맞는 학생주일을 지키기 위해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대 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은 상당수의 젊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걱정은 그들이 학과 공부에서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뺏기도 하고 여러 과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안드레아가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특별헌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면, 더 많은 빛을 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말처럼, “학비를 대기 위해 건강을 버리기까지 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장학금은 재정적 문제에 관한 그녀의 스트레스를 많은 부분 해소해 주었고, 그녀가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특별헌금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학교와 직업 가운데 웨슬리 전통의 가치를 전할 젊은 지도자들을 위한 희망의 통로에 투자하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

누가복음 21:34

헌금 전 이야기

오늘 우리가 드리는 특별헌금은 미래일과 같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자란 학생들을 돕습니다. 특히 교우들은 그녀가 정신 건강 문제와 영적 고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희망의 선물 장학금은 교단 전체로서 그녀의 지도력에 투자하면서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학교에 혹은 어떤 학교에도 진학할 수 없는 연합감리교회 소속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이들의 헌신과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특별헌금을 통해 마련된 선물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보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는 예물은 이러한 학생들을 후원하여 그들이 신앙과 지식을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특별헌금은 연합감리교회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그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한편 영적인 힘을 또한 제공할 것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는 교회 전체가 학생들과 그들의 능력을 신뢰한

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교육과 신앙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합감리교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려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말씀에 던진 같은 질문을 우리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전서 3:9)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복 내리시고 곱절이 되게 하소서. 모든 연합감리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지혜와 기회의 길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의 걱정을 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지도력과 자신감, 대강절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